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실천계획)

관리번호	미래증평 ⑦-1	공약명	인구 5만의 압축도시(콤팩트시티) 기반 구축						
총괄부서	도시건축과	추진담당	도시계획팀	담당자	한선동 (☎3912)	협조부서	미래전략과 농업유통과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총 사업비			1,664백만원			
<p>□ 목표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 공간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농촌 생활권을 설정 및 비전과 목표 제시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 1,664백만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 기본·관리계획계획 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범위 : 81.83km² (중평읍 : 55.40km², 도안면 : 26.43km²) - 군기본계획 성격 :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 - 계획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상위계획 수용과 급변하는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및 도시공간구조 구상 제시 · 읍·면지역의 균형개발 등 계획적 도시성장기반 마련 ·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② 2040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 전략 계획(20년)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 수립 - 농촌 중심지 계층 분석 및 생활권 접근성 분석 - 농촌공간의 여건 조사 및 읍·면별 공간의 적정 사업 발굴 ③ 쇼핑·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랜드마크형 명품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중평읍 증천리 8번지 일원 - 면적 및 세대수 : 175,845㎡ / 2,552세대 - 시 행 자 : HDC현대산업개발(주), (주)제이엔엘 - 사업기간 : 2022년(구역지정고시일)-2026년(공사완료공고일)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평 발전방향 및 미래상 재정립으로 새로운 미래 증평 기틀 마련 ○ 농촌생활권 활성화로 농촌공간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력 제고 									

□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	총계	기투자	투 자 계 획						2027 이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664	200	1,464	364	500	200	200	200	-
국비	-	-	-	-	-	-	-	-	-
도비	-	-	-	-	-	-	-	-	-
군비	1,664	200	1,464	364	500	200	200	200	-
기 타	민자	-	-	-	-	-	-	-	-
	자담 등	-	-	-	-	-	-	-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및 확인지표								진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착수 ·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추진 								5%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 ·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25%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 ·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및 고시 · 생활권 활성화 계획 활용 농촌협약 옹모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 								50%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 								75%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 								100%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이행현황)

□ 사업비 확정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기투자	집행액						2027 이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830	200	630	164	466	-	-	-	-
국비	-	-	-	-	-	-	-	-	-
도비	-	-	-	-	-	-	-	-	-
군비	830	200	630	164	466	-	-	-	-
기타	민자	-	-	-	-	-	-	-	-
	자담 등	-	-	-	-	-	-	-	-

□ 추진현황

연도별	주요 내용						
2022년	○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제명	수립기간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2021.3.25.~ 2023.1.7.	264	-	-	264
	○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구분	수립기간	사업비(백만원)				추진현황	
		계	국비	도비	군비		
군기본 및 관리계획	2022.12.~2026.12.	1,000	-	-	1,000	- 1차분 착수 : 2022.12.9.	
성장관리계획	2022.12.~2024.2.	316	-	-	316	- 1차분 착수 : 2022.12.9.	

연도별	주요 내용		
2022년	<p>중부매일 증평군 출범 20주년 '2040기본계획' 수립</p> <p>2022년 12월 27일 (목) 08:58 송고</p> <p>증평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 주변을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살고 싶은 압축도시를 구축한다. 이번 용역은 내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군민계획단 운영,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p> <p>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2040년 군기본계획의 방향은 군의 접근성의 편의를 확충하고 지역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성장동력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송창희 / 증평</p>		<p>충청신문 '살고 싶은 압축도시' 구축한다</p> <p>2022년 12월 27일 (목) 11:05 보도</p> <p>증평군이 2023년 개청 20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속을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40년 증평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p> <p>증평군은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담아낸 '2040년 증평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p> <p>주요 내용은 계획 목표 및 지표설정,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등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송창희 / 증평</p>
	<p>○ 명품 주거단지 조성</p> <p>- 사업의 개요</p>		
	사업지구	위치	규모
			면적
증천1,2지구 도시개발 사업	증평읍 증천리 8번지 일원	177,878㎡ (1지구 : 78,546㎡, 2지구 : 99,332㎡)	2,398세대
- 추진현황			
구분	구역 지정 입안서 접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군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군수→도지사)
일정	2022.2.24	2022.7.29.	2022.10.7.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이행현황)

연도별	주요 내용												
2023년	<p>○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 2023.1. 6.</p> 												
	<p>○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착수보고회</th> <th>1차분 준공</th> <th>2차분 착수</th> <th>중간보고회</th> <th>군민계획단</th> </tr> </thead> <tbody> <tr> <td>일정</td> <td>2023.2.17.</td> <td>2023.4.7.</td> <td>2023.4.8.</td> <td>2023.7.17.</td> <td>4회</td> </tr> </tbody> </table>	구분	착수보고회	1차분 준공	2차분 착수	중간보고회	군민계획단	일정	2023.2.17.	2023.4.7.	2023.4.8.	2023.7.17.	4회
	구분	착수보고회	1차분 준공	2차분 착수	중간보고회	군민계획단							
일정	2023.2.17.	2023.4.7.	2023.4.8.	2023.7.17.	4회								
<p>증평군 '2040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착수보고회 개최</p> <p>미래상 재정립으로 새로운 미래 증평 기틀 마련</p> <p>증평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40 군기본계획 및 2035군관리계획, 2040 성장관리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p> <p>2040 군기본계획으로 개발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5 군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개발 절차 및 자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시기획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를 위해 2040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p> <p>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재정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과업 개요 및 수행 방향, 계획수립 중점 검토사항 등을 보고 받고 증평군 발전 방향과 장래 개발수요의 효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p> <p>군은 향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계획단을 시작으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 중심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김총희 도시교통과장은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를 반영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재정립해 새로운 미래 증평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증평 / 안재신 기자</p> 													

연도별	주요 내용																										
2023년	<p>○ 명품 주거단지 조성 : 증천1,2지구 도시개발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치계획서 협의 및 작성</th> <th>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증평군수→충북도지사)</th> <th>중양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요청 (증평군수→충북도지사)</th> </tr> </thead> <tbody> <tr> <td>일정</td> <td>2023.2.~ 2023.10.</td> <td>2023.11.10.</td> <td>2023.12.04.</td> </tr> </tbody> </table>	구분	조치계획서 협의 및 작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증평군수→충북도지사)	중양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요청 (증평군수→충북도지사)	일정	2023.2.~ 2023.10.	2023.11.10.	2023.12.04.																		
	구분	조치계획서 협의 및 작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증평군수→충북도지사)	중양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요청 (증평군수→충북도지사)																							
	일정	2023.2.~ 2023.10.	2023.11.10.	2023.12.04.																							
<p>○ 콤팩트시티 증평 '20분 도시' 전략 구상 발표 : 2023. 8. 27.</p> 																											
<p>○ 송산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리버빌아파트) 승인 고시 : 2023.10.10.</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치</th> <th rowspan="2">시행자</th> <th colspan="3">규모</th> </tr> <tr> <th>대지면적</th> <th>건축면적</th> <th>연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증평읍 미암리 616 외 24필지</td> <td>(주)제이 에스디</td> <td>16,696㎡</td> <td>2,846.9677㎡ (건폐율:17.05%)</td> <td>53,738.0113㎡ (용적률: 245.21%)</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건축물명</th> <th rowspan="2">세대수</th> <th colspan="2">동수 및 층수</th>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r> <tr> <th>동수</th> <th>층수</th> </tr> </thead> <tbody> <tr> <td>리버빌 (아파트)</td> <td>387세대</td> <td>주4동, 부5동</td> <td>지하 1층 지상 29층</td> <td>118,398백만원</td> <td>2024.5~ 2027.12.</td> </tr> </tbody> </table>	위치	시행자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증평읍 미암리 616 외 24필지	(주)제이 에스디	16,696㎡	2,846.9677㎡ (건폐율:17.05%)	53,738.0113㎡ (용적률: 245.21%)	건축물명	세대수	동수 및 층수		총사업비	사업기간	동수	층수	리버빌 (아파트)	387세대	주4동, 부5동	지하 1층 지상 29층	118,398백만원	2024.5~ 2027.12.
위치			시행자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증평읍 미암리 616 외 24필지	(주)제이 에스디	16,696㎡	2,846.9677㎡ (건폐율:17.05%)	53,738.0113㎡ (용적률: 245.21%)																							
건축물명	세대수	동수 및 층수		총사업비	사업기간																						
		동수	층수																								
리버빌 (아파트)	387세대	주4동, 부5동	지하 1층 지상 29층	118,398백만원	2024.5~ 2027.12.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이행현황)

연도별	주요내용
2023년	 

□ 향후 추진계획

-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 : 2024. 1.
-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총괄 및 2차분) 준공 : 2024. 2. 1.
-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2차분) 준공 : 2024. 4. 1.
-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3차분) 추진 : 2024. 4. ~ 2025. 3.
-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잔여분) 추진 : 2025. 3. ~ 2026. 12.
- 증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 : 2024. ~ 2026.

□ 이행현황

구분	완료	추진중			미착수		비고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도			○				20%

□ 공약사업 추진 중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없음”

□ 기타사항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토)
14면 기획

‘스무살’ 증평군은 어떻게 ‘증가포르’로 거듭났나



‘행복마을’ 사업으로 마을 안팎을 함께 돌보는 수거한 유휴공간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렴 가격에 주택 1순위 후보였으나, 결국 행정동 팀이 지역발전 연구회가 단기간 무상개발 상가 포럼을 열었다.

문대 가정 학교. 당시 별다른 산업 기반도 없었고, 인구도 전국 최저 수준인 3만1,0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25.3%로 총정권 군 단위 가운데 1위다. 전국 군 단위 1등 인구 비율 평균(18.2%)에 비해선 7.1%포인트나 높다.

다시로 지방세(세율) 관련 관세이관국 최대 18%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행복마을’ ‘청년 임대주택’ ‘청년 플랫폼 사업’ 등이 어바인과 함께 유망 투자처로 주목된다.

중복 증평군이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세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채 재건도 특화된 2020년에 인구는 농촌 군이 지방발전과 인구 증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보물창고였던 이 작은 군은 예외적으로 높고, 높은 기간 무상개발 상가 포럼을 열었다. 눈 뜨고 보니 ‘증가포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가 자리 잡았다. ‘증가포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증평의 주민들 마음은 9월 말 기준 3만 7,000명으로 늘었다. 18%포인트나 20% 증가했다.

지역 경제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증평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가평’을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잘 관리하고 문화를 다듬을 기회를 늘려, 수급률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마음을 가늠하는 60%나 된다.

1년 1천여 명이 유입된 증평군은 전국에서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세간 내일신문

2023년 05월 17일 (수)
9면 기획특보

“생활인구 늘 돌렸더니” 고향사랑기부 성과

기부확인증 발급, 주민과 같은 혜택 증평군, 생활인구 10만명 100억 목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의 목적은 ‘지방소멸’ 대응이다. 일약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새로운 창구를 열어 주고, 인구문제에 대응할 관제-생활인구 확대를 꾀하고 만든 제도다.

지역마다가 출생인도, 또 그간의 수축감도 낮은 상황에서 “증평을 고향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이웃 지자체들과 비교해 답답해 경쟁력도 강할지 걱정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한겨레

생활인구, 공유도시...지방소멸 위기 넘는 대안 되나



증평군 주민들이 생활인구 증가를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구를 늘려 생활인구 증가는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쓰는 공유도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증평군은 이번 특성을 고려해 행정 수요자에 이로운 주민, 즉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증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를 ‘생활인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이행현황)

서울신문

[마감 후] 3시간 생활인구의 기적/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입력 : 2023-04-07 01:29 | 수정 : 2023-04-09 10:14



▲ 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국방을 할 그럭저럭하면서 입소도 나눈고, 예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했다는 예산사도 한 바퀴를 돌아보는 데 3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산사장을 둘러본 방문객은 지난 5월 말 기준 68만 명을 넘겼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뒤 '3시간'은 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횡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3시간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보기 위해 정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법제상 '3시간'이 명확해졌지만 삶에서 3시간은 예매한 시간이다. 밥을 먹고 자를 마시고 고공이나 명승지를 둘러보는 데도 2시간 정도면 족하다. 단순 체험의 단계를 넘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3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생활인구의 시간 기준이 정해지니 지자체의 준비가 엇갈리고 있다. '백종원 효과'로 생활인구가 증가한 예산군은 여세를 몰아 체류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전문 인력에서의 다스민어업 등 내놓고, 강원 정선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발상지인 정선읍 전체를 아리랑마을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먹으로 서울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경기 가평에서는 어떻게 하면 머무르게 할 수 있는냐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자체도 있다. 충북 증평군은 1층만의 특성과 적은 인구, 지자체의 짧은 역사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처했지만 관계 인구 형성에 집중했다. 군은 생활인구 시범사업으로, 증평과 강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증평군민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충북 도내에서 가장 먼저 고행사항마을로 급격히 '이탈'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방소멸은 광역민관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생활인구는 무조건 돈으로 늘릴 수 없는 문제다.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기가이 3시간 이상을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고민을 거듭하고 발로 뛰어다 한다. 이번 정례회 구호에 그친다면 지역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지도 모른다.

서울신문

지역 체류자 할인, 워케이션... '생활인구' 늘리기 사활 [자치분권 2.0-함께 가요! 지역소멸 막기]

입력 : 2023-03-06 00:34 | 수정 : 2023-03-06 00:34

충북 증평군은 전통시장, 학교, 교통 등에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장주·백이면, 진천·조영면, 괴산·청안·사리면, 음성·화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증평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군은 이달부터 군민도시권의 산구 회원 가입 범위를 인접 지역 주민들로 확대한다. 화주산 휴양랜드의 숙박료 할인 혜택을 재검열 예정이다. 산구수는 10%, 배수기는 30%다. 군은 관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등 체육시설에 대한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주인구 늘리기가 어려워 이제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기다수침 증평군 출생 20년 만에 '작은 거인'으로 우뚝



▲ 심선선 부구청장(충청타임즈)

시전(1881명)은 충청 지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세는 3만740명(2022년 1월 기준)으로 20년 시대가 넘지 않았다.

행정 담당으로 행정안전부 인구지침에 따르면 40세 이하의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13.2%로 71% 높다. 수도권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평군은 동계면 분교도 20년 만에 47에서 141명으로 늘었다. 이원 정장은 GSD(가정·생활·생애)와 예산 규모도 각각 3배와 10배로 증가했다.

증평군은 2023년 3월 20일 기준 인구가 14만 1천 100명으로 20년 만에 13.2% 증가했다. 수도권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평군은 동계면 분교도 20년 만에 47에서 141명으로 늘었다. 이원 정장은 GSD(가정·생활·생애)와 예산 규모도 각각 3배와 10배로 증가했다.

이대, 개항 당시 세워진 부실상과 약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행정 담당'으로 행정안전부 인구지침에 따르면 40세 이하의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13.2%로 71% 높다. 수도권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평군은 동계면 분교도 20년 만에 47에서 141명으로 늘었다. 이원 정장은 GSD(가정·생활·생애)와 예산 규모도 각각 3배와 10배로 증가했다.

한겨레

병원·휴양림·화장장 등 함께 사용...'공유도시' 눈길 끄네

충북 증평군, 과산 증평 2019년 '메가카운터' 구상

■ 부원 '메가카운터'

충북 증평과 이웃자치단체인 진천·음성·괴산·증평군은 2019년 5월 '증부 4군 공유도시'를 선언했다. 부울림(부산·울산·림남)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메가시티보다 작은 인구 30만명 안팎의 메가카운터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이다. 이들은 업무협약과 실무회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현재 15가지 공유도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대상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눈에 띈다. 이들 네 지역 주민은 군 복지관 등이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등 자치단체마다 소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도 군민 할인 혜택을 서로에게 준다. 트랙터이앙기 등 농기계 임대도 공유한다. 예초·인사 교류와 체육대회 등도 추진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미뤘다.

한겨레

충북 증평 인구, 19년 전 속했던 괴산도 앞질렀다

조미나 자치단체로 출발한 충북 증평군이 진천·괴산군 인구를 앞질렀다. 괴산에서 분리 독립해 굳어 왔던 19년 만이다.

증평군은 7일 '음력'을 맞아 자치체인 인구가 늘어 지난해 말 3만718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인구 2.1%가 늘어 충북 최고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평은 이웃 괴산군 인구(3만7110명)도 앞질렀다. 증평은 지난 2003년 8월 30일 괴산군에서 분리 독립해 군으로 속속했다. 당시 괴산 인구는 4만411명이었고, 증평은 괴산보다 9101명 적은 3만3130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였다.

지역 인구 구성을 보면, 증평과 괴산의 인구 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증평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7111명으로 19.3%다. 충북에서 전체(17.1%)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하지만 괴산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만3775명(37.1%)으로 충북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19살 이하 인구는 증평이 6257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지만, 괴산은 증평의 절반도 안 되는 3063명으로 전체 인구의 8.2%에 그쳤다. 괴산은 40년 전인 1982년 인구가 11만 9366명이었지만 해마다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했다.

증평은 젊은 인구의 추가 유입을 위해 2023년 말 청년 보합률 2배, 산후부부합선 3배 지원, 다세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등 다양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증평군수는 "가구 유형, 생활 패턴 등에 맞게 다양한 인구 정책을 마련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승주 기자 sting2@hani.co.kr

사업명	일 자	장 소	주 관	훈 격	비 고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상	2022.11.23	aT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지역 인물 스토리텔링 등 디자인 혁신

동상일보

증평군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상'

기초자치단체 최고상... 도시 디자인 조례 등 호평

증평군이 23일 서울 아트센터에서 열린 24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디자인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상으로 디자인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 기업,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은 지역 디자인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과 공공혁신을 이룬 공로로 기초자치단체 최고상인 국